

광산구,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집중

세수 결손에 내년 구정 운영 어려움 지역역점사업 예산 여야에 적극 건의

광주 광산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딛고 시민 체감도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효율적 구정 운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라 긴급재정방지를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운영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는 11조6000억 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광주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만 보더라도 6조9083억 원으로, 전년보다 2019억원이 감소했다.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광산구는 이처럼 부족한 예산위기를 대비하고,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을 위해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구는 실제 일찌감치 중앙부처, 광주시 정책과제 등과 연계해 핵심 정책의 동력이 될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구비 부담이 낮은 투자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눈에 띈다.

민선 8기 들어 대외 공모·평가에서 국·시비 192억 원, 광주시 특교금 135억 원, 특교세 69억 원이라는 성과를 낸 광산구는 지난 1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연계한 만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투입된다.

광산구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도 국비 확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지역 특색사업 등 우선순위를 정한 전략 대응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현안과 역점사업에 필요한 국비 반영 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광산구의 주요 건의 사업은 '황룡강 생태길 30 조성 사업',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광주송정역세권 활성화 등 민선 8기 광산구 역점 사업과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연결,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침수 취약지역 피해 방지 등 시민의 건강 한 여가생활, 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이다.

지난 21일에는 손경중 전 광주시 국장(광산구 정책기획단 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현안과제 담당 팀장 등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은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등 전문 역량 강화, 정부 소관부처 방문 등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략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국회 예산 심사 마지막까지 국비 마련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내년 자체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과 시기성을 확보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은 과감히 없애고, 생활불편 해소와 자연재난 대응,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내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광산의 새로운 변화·발전 위한 주요 현안과 시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지원을 받은 전문 극단 배우들이 최근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인권 향상과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 권리 인형극'을 공연하고 있다.

바른 인성교육 '찾아가는 아동 권리 인형극'

광산구, 지역 어린이집 대상 이달말까지 4차례 공연

광주 광산구는 "아동의 인권 향상과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 4개소, 원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 인형극'을 공연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문 극단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바른 인성, 민주 인권, 유아 안전 등을 주제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인형극을 공연하고, 아동 권리 존중과 가치를 확산하는 게 목적이다.

인형극은 지난 15일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4회 진행된다. 광산구는 미취

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 기존 아동 권리 교육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한 인형극이 아이들 스스로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 있는 인형극이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 향상,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외국인노동자 인권 증진·처우개선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노동환경 개선' 정책간담회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광산구의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간담회에는 광주민중의집 김춘호 변호사와 광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흥관희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한운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김춘호 변호사와 흥관희 운영위원이 각각 '이주노동자 법률상담 사례'와 '타 지자체 조례 분석'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주민 중 55.5%가 광산구에 거주 중이고 대부분이 관내 산단에 근무하고 있지만 노동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김춘호 변호사는 "2021년 조사된 산재 사망자 중 12.3%가 외국인노동자"라면서 "산재불처리, 임금 체불 등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정비, 주거·노동환경 및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흥관희 운영위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법규의 유효에도 차이가 있다"며 "광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인권 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광산구의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제도와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외국인노동자들이 행정기관을 기피하는 특성이 있어 그동안 민간 단체를 중심



으로 지원사업들이 진행돼 왔다"며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또 통역사 지원,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광산구-국제로타리 3710지구 '황룡강생태길30' 활성화 협약

광주 광산구는 지난 21일 비영리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 3710지구(총재 조형준)와 '황룡강생태길30 조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국내 1호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생

태길30 조성 사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 시민적 협력과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황룡강생태길30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정원 만들기, 환경 정화 등에 봉사활동으로 협조하고, 황룡강생태길30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 등도 참여·지원한다.

또 황룡강생태길30 조성 전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에도 상호 협력하고,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명품길' 조성과 지역사회 공헌의 연계 활성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청소년이 만드는 꿈의 무대 'MY DANCE'

'꿈의 댄스팀 광산' 첫 번째 공연... 25일 광산문화예회관

광주 광산구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광산문화예회관 1층 대극장에서 '2023 꿈의 댄스팀 광산' 첫 번째 공연 'MY DANCE(마이 댄스, 나의 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아동·청소년이 꾸준한 노력과 교육을 통해 창작한 공연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댄스팀 운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았고, 지난 5월부터 아동·청소년 댄스팀인 'MY DANCE'를 모집·운영해 왔다.

댄스팀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 광주지역 29명의 아동·청소년이 단원으로 참여했다.

나의 일상을 춤으로 표현해 행복과 성취감을 얻고 성장한다는 댄스팀의 핵심 주제 아래 매주 일요일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에서 20여 회 현대무용 교육을 진행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한다. 25일 공연은 올해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한층 성장한 댄스팀의 맛지고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의 이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등 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한 12개 세부 공연이 진행된다.

신희홍 '2023 꿈의 댄스팀 광산' 무용감독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고, 춤을 추며 느끼는 행복과 성취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분들에게도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활동하며 더욱 성장할 꿈의 댄스팀 광산의 첫 무대에 많은 분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 사전 신청(https://naver.me/FoHTmTsD)으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88)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